

‘조경 · 관상수로서의 무궁화’



김남균
(산림보호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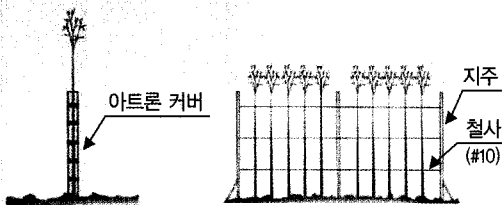
무궁화는 반만년 동안 우리 민족과 함께 수난과 기쁨을 같이 한 민족의 꽃이자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국민들에 의해 정해진 나라꽃이다. 이러한 나라꽃 무궁화에 대한 연구는 해방 이후 꾸준히 계속되어 최근 20년 동안은 무궁화의 생리, 재배관리, 환경 및 해충에 대한 저항성, 가로수 및 분화로 의 이용 등 다양한 연구가 국립산림과학원, 한국원자력연구원을 비롯하여 서울대학교 등의 학계에서 수행되어 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에 발맞추어 해마다 산림청과 지자체에서는 약 10만그루의 무궁화를 식재하고 있으나, 수천억원에 이르는 조경 · 관상수 시장에서 무

궁화가 차지하는 시장 점유율은 여전히 미미하다. '무궁화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과반수 이상(56.2%)이 나라꽃으로서 무궁화가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원인을 알아본 결과 '다른 꽃에 비해 생활주변에서 흔히 볼 수 없다' (47.3%)라는 답변이 대다수였다.

이러한 사실은 조경·관상수로서 무궁화를 국민들이 생활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공원·정원·가로수 식재를 확대하고, 가정에서도 쉽게 키울 수 있는 무궁화 분재 개발·보급 등에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함을 반증한다. 또한 무궁화는 대부분의 다른 수목들이 꽃을 피우지 않는 여름철에 개화기간이 100여 일 동안 지속되어 관상수로서 가치가 높기 때문에 이제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좋은 품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최근 들어,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무궁화를 가로수로 심자는 국민들의 제안이나 요청이 많이 들어온다. 하지만, 무궁화는 수고가 3~5m 내외로 자라는 나무이므로 인위적으로 아무리 잘 키워도 그 크기에 어느정도 한계가 있다. 물론 무궁화를 버즘나무나 은행나무처럼 큰 나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혹시 가로수로 조성한다 하면 잘못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유념해야 하며, 관목류도 장소에 따라 가로수로 심을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과 내한성, 내충성, 내공해성이 강한 품종의 육성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맹아 발생
주간에서 맹아가 나오지 않도록 비닐 아트론 커버나 밭을 그림과 같이 씌운다.

밀식 재배
그림과 같이 밀식 재배를 통해 지하고를 높이고, 쓰러지지 않도록 서로 가지를 붙들어 매준다.

(지하고를 높게 유도하는 방법)

다양한 품종을 가지고 있는 무궁화는 생육형도 다양하게 나타나므로 그 특성을 알고 식재 목적에 부합하도록 선별하여 식재하여야 한다. 또한 무궁화는 가지 자르기를 실시하여 원하는 수형을 만들 수도 있는데, 용도에 따라 줄기의 밑부분을 잘라내어 교목형으로 유도할 수 있으며, 윗부분을 잘라내어 왜성(矮性)형으로 유도할 수도 있다.

왜성(矮性)형으로 유도한 분재로서의 무궁화의 가능성 또한 무궁무진하다. 분재로서의 무궁화는 품종이 다양하여 취미에 맞게 선택하여 가꿀 수 있으며, 접이 잘되고 가지치기가 쉬우며 도시에서는 공해에 강하고 증식이 어느 수종보다 쉽다.



보통 무궁화는 한 송이의 꽃이 아침에 일찍 피었다가 해가 지면 떨어지는데, 당년생 가지가 서리가 올 때까지 생장을 하면서 계속 꽃을 피우기 때문에 생장도중 진정을 하면 꽃을 볼 수가 없다. 보통 1년지는 대개 60~100cm 자라므로 그대로 남겨두면 분재로서는 적당치 않은 수형으로 되기 때문에, 다음해에 다시 꽃은 2~3개만 남기고 강진정을 하여 수형을 밀집형으로 유도시키면 된다.

지금까지 무궁화는 생명력이 강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심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은 이제 버려야 될 것 같다. 또한 무궁화 꽃의 아름답고 탐스러운 지태와 수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무궁화의 특성 및 육성법을 정확히 알아서 그에 따라 정성어린 사후 관리가 뒤따르면 국민들의 생활 속에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가고, 조경수로서 무궁화가 한단계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전환점이 되리라 믿는다.